

STANDARDS PRISM ① 표준의 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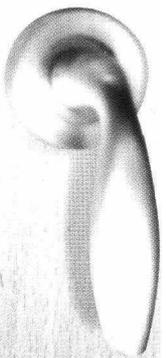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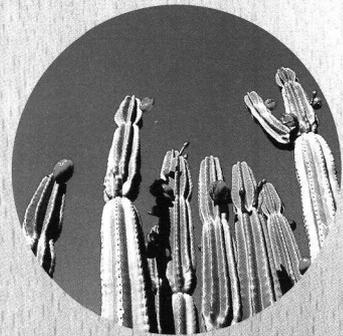
글_ 정병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구 시민의 공익 추구에 앞장설 ISO TMB 재진출

다양성과 변화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표준 제정 기대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이사회(TMB)에 재진출했다.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선출직 다섯 자리를 놓고 열한 개 국가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이다. ISO TMB 재진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기존 표준 선진국들의 표준화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편집자>”



지난 9월 초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이사회(TMB)에 재진출했다고 밝혔다. 기술관리이사회 14개 이사국들 중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선출직 다섯 자리를 놓고 열한 개 국가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주요 경쟁국인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제치고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섯 개 상임이사국과 아홉 개 선출이사국으로 구성된 TMB는 ISO 내에서 신기술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신설, 기술위원회 간 통합과 분리, 기술위원회 간사국과 의장국 수임 결정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조직이다. 때문에 ISO TMB에 진출한다는 것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논의할 기술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의장과 간사를 수임할 때에는 물론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는 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 ISO 이사국 다섯 번 진출, ISO 소비자제품정책위원회(COPOLCO) 의장국(2006~2009) 역임에 이어 금년 TMB 재진출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기술관리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표준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가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계를 무대로 하는 표준화활동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지구적 공익을 증진시키는 매개자 역할

표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여타 국가들에게 기술 우위를 뽐내는 구태의연한 국위 선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해 여타 국가들을 지배하면서 기술·경제적 삼투작용을 노리는 것도 아니다. 신흥시장국들이 기존의 G7 국가 지배체제를 견제해 약소국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매개하는 것에서 G20에 참가하는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ISO TMB 진출의 의미도 동일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곧, 모든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기존 표준 선진국들의 표준화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표준은 인간생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특히 공공기관이 합의를 통해 제정하는 공적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표준이라면 한 국가에서 출발하되 모든 지구인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공동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기상청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세계기상기구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의 한국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유치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기상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난 9월 29~3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3차 아시아 기후변화 감시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을 통해 기상청은 한국이 '동북아시아 기후변화 감시의 최적 장소'임을 확인시키고 우리나라 기후변화 감시활동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상청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이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온실가스 세계 최대 배출지역"이라며 "기후변화 감시업무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의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재해의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규제할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더 나아가 선진 각국의 세계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워크숍 참가자들은 '온실가스 감시활동'이란 주제로 각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시에 대한 정책, 현황, 활동, 기술, 분석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협력 활성화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표준 제정

인간생활의 안전과 발전을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표준화활동을 위해 다음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실제 생활에 밀착된 표준을 제정하되 생활의 변화까지 충실히 반영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표준 자체가 기원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인간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생활상의 변화를 거스르면 실효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맞춤법 표준안은 이러한 의미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다행히 지난 8월 국립국어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족한 점들이 시정되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짜장면', '먹거리'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해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한 것이다.

사실 '짜장면'과 '먹거리'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비표준어들보다 사전에 규정된 표준어들이 더 생소하고 어색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두리몽실하다', '눈꼬리', '남사스럽다' 등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두루몽술하다', '눈초리', '남우세스럽다'라는 표준어에 구속시켜 자연스런 국어생활을 방해하고 오답의 부담감을 키워왔다.

이처럼 부자연스런 표준어의 강요는 마치 '박쥐'를 '뱀쥐'로 쓰기를 강요하고 '짐승'을 '중생'으로 쓰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진배없다. '밤눈이 밝다'에서 '밤눈이 밝은 쥐', '뱀쥐'라는 어원을 굳이 상기시키고, 이제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르는 말이 되어버린 '짐승'이 사람을 가리키는 '중생'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논리적 판단이 체험적 생활을 거부함으로써 비논리적 상황이 연출되는 꼴이다.

이 새로운 표준어 인정과 관련해 국립국어원은 "언어사용 실태조사와 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표준을 실제 생활에 밀착시킴으로써 언어생활의 발전을 가져올 결정으로서 역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교육표준 등과 같은 인문사회적 표준도 이제 표준화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ISO도 이 새로운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에서 국민생활밀착형 표준을 제정하듯이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도 우리나라는 ISO의 주요 이사국으로서 지구적 생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세계적 생활밀착형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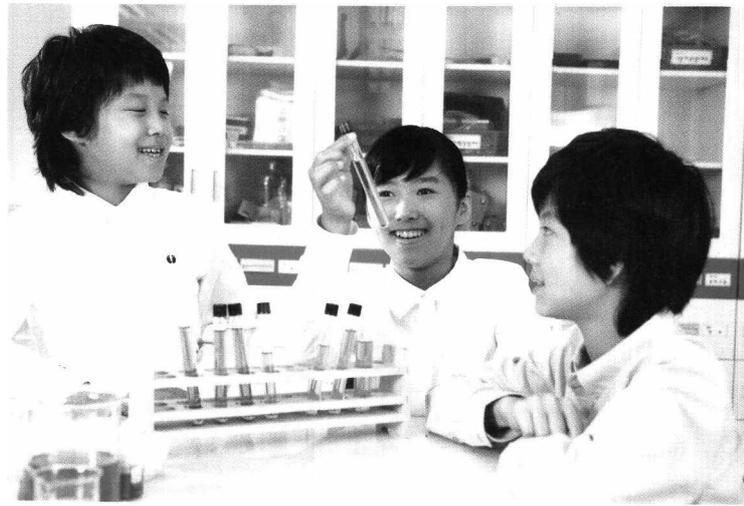
자연법칙을 살린 인간 규범으로서의 표준 제정

표준은 인간이 제정하지만 태초에 인간에 의해 창조된 것은 아니다. 인간생활이 유지되고 향유되는 곳에는 언제나 신이나 자연에 의해 창조된 법칙이 존재한다. 사회활동을 규제하는 규범이나 약속은 물론 인간이 제정한다. 그러나 인간 상호 간 행위를 규제하는 이 규범과 약속은 신이나 자연이 창조한 법칙을 따르고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표준은 자연법칙을 발견하고 인위적 규범으로 전환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서 인간생활과 연관된 가장 대표적 표준이 표준시(標準時)다. 지금 모든 국가들은 오래 전 선조들이 제정한 세계표준시를 따르고 있다. 경도 0°의 시각을 기준으로 어떤 시각을 나타내는 시(時)를 말하는 세계표준시는 1972년 1월 1일부터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협정 세계시(UTC)를 기본으로 한다. 각 나라들은 이 세계시에 자국 경도에 따른 시차를 더해 국가 혹은 국내 지방

표준시를 채택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의 표준시(KST)는 세계표준시(그리니치시, GMT)보다 9시간 빠르다.

현재 개인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의 근간으로서 비할 데 없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표준시는 분명 인간들이 과학적 사고를 토대로 인위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시의 기본은 태양



▲ 교육표준 등과 같은 인문사회적 표준도 표준화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 일주운동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시는 단위와 운동방식은 동일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일주운동을 반영해 그 지역의 경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이와 같이 자연법칙은 동일성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내포하고 있다.

시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이나 신이 정한 표준이다. 반복되는 자연주기를 시간의 단위로 정했기 때문이다. 인간활동이 크게 제약되는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인간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일 년이라는 기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활동은 더욱 작은 단위의 시간을 다루게 됨으로써 분초와 같은 짧은 단위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문명의 양태에 따라 역법도 달리 나타났다.

태양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집트 등지에서는 오늘날 양력의 모태인 태양력(太陽曆)이 발전한 반면, 달의 운행에 따라 농경 절기가 결정되는 동양에서는 태음력(太陰曆)이 발전했다. 그중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달의 운행만을 기준으로 순태음력(純太陰曆)이 개발되었고, 중국과 동아시아에서는 태양의 운행에 가미한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 발전되었다. 역법에 관한 지식이 없었을 때에도 인간은 태양과 달의 운행에 따른 자연현상의 변화로 추측하였다고 한다. 그 중에서 꽃이 피고 새싹이 트고 철새가 날아 들고 물이 어는 것을 보고 인간은 계절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자연력(自然曆)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 자연력에서 역법을 발견하고 또 이를 발전시켜 오늘날의 시간이 탄생했다.

이와 같이 시간의 역사는 자연의 역사를 반영하고, 이러한 자연의 역사에서 표준이 창조되고 발전했다. 다시 말해 시간이라는 표준은 인간이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자연법칙을 발견하고 인간생활에 적합하게 발전시킨 인간 지혜의 대표적 예다. 그중 세계표준시가 태양력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산업활동의 척도라면, 태음태양력의 절기는 농경생활의 중요한 척도이다.

표준을 통일성과 다양성의 변증법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ISO TMB에 진출한 것은 신흥시장국의 대표 주자로 나섰다라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태양력의 시간과 태음태양력의 절기를 아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의 새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번 ISO TMB 재진출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문화적 다양성과 변화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표준의 제정을 통해 전 지구 시민들의 공익을 추구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해 본다. **S**